대한제국 불교정책이 남긴 흔적



김경집의
사찰 속 숨은 이야기
⑲ 원흥사와 안양암

1. 대한제국 대법산 원흥사의 창건

서구 열강에 맞서 황제의 나라를 천명했던 대한제국은 1897년에서 1910년까지 14년의 짧은 기간 존속했다. 칭호와 달리 나라의 모든 상황은 점점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불교 역시 개항 이후 진출한 일본불교가 1895년 도성출입금지가 해제된 계기로 점점 증가되는 추세였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대한제국은 지금까지 방치하였던 한국불교에 대한 관리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일본불교 각 종파는 이미 한국 내 포교소를 설치하고 법회를 통해 상당히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었다. 그중 정토종은 경성개교소를 세워 상당히 큰 위세를 발휘했다. 대한제국은 일본불교를 고갈시키고 정토종 회원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다.

한국불교를 통합할 수 있는 중심 사찰을 세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이런 의도에서 대한제국은 동대문 밖 창신동에 별장이었던 영미정을 매입해 사찰로 개축했다. 처음 명칭은 소흥사였던 이 사찰은 1902년 1월 원흥사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

원흥사는 창건되면서부터 한국불교의 대법산으로 총종무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설치된 승직 가운데 중요한 것은 도섭리와 내산섭리였다. 여기서 도섭리는 총무원장이며 내산섭리는 경성 부근의 사찰을 총감독하는 위치였다.

경성 내의 궁녀와 양반가의 부인들의 참배가 빈번하여 다른 곳의 사찰과 구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승직 이외에도 좌우교정, 대선의, 상강의 각각 1인 그리고 이무 5인을 두었다.

이와 함께 13도 각각 1개소의 중법산을 두었다. 이곳에는 섭이, 도교정, 부교정, 선의, 강의 각각 1인씩을 두고 도내 사찰의 사무를 총괄하게 하였다. 각 사찰에는 주지 1인을 두었다.

1902년 1월 25일에 거행된 원흥사 개당식에는 공사 책임자인 권종석과 중추원의관 조병덕 그리고 도섭리로 임명된 순일을 비롯하로 승려 500여 명과 재가신도 약 300여 명이 모였다.

정토종의 책임자였던 광안진수를 초청하여 법문을 들었다. 이처럼 많은 숫자의 대중들이 모여 법회를 개최한 것, 정토종 포교책임자를 초청한 것은 한국의 사원관리를 과시하고자 하는 의도와 원흥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던 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그렇지만 대한제국의 불교정책이라는 원대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원흥사는 창건 후 특별한 활동을 펼치지 못하였다.

정부의 계획 역시 후속으로 이어지지 못하였고, 한국불교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04년 사사관리서가 폐지되자 대법산 제도 역시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이곳을 보존하고 발전시켜야 하겠다는 생각한 것은 불교연구회의 홍월초와 이보담이었다. 신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교육기관 설립을 생각한 그들은 1906년 2월 5일 내부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다. 그 청원에 대해 내부는 2월 19일로 허가를 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교육을 개발하여 자비와 수선에만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1906년 2월 19일 허가를 받은 불교연구회는 각도의 수사찰에 그 취지와 학생을 모집하는 통문을 보냈다. 13세에서 30세의 학생들을 뽑았으며 경비는 연구회에서 부담하였다.

이 같은 목적에 의해 설립된 명진학교는 당시 의식 있는 승려들의 지지를 받았다. 한국불교의 국가적인 관리는 실패하였지만 근대식 불교교육은 시작할 수 있었다.

그 후 원흥사는 명진학교가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1916년 매각되었고, 그 후 창신공입보통학교가 세워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2. 사찰을 관리하던 사사관이서

대한제국이 일본불교에 대한 경각심에서 한국불교 재건의 목적으로 세웠던 것이 원흥사였다면, 사사관리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겠다고 1902년 4월 11일 세운 정부부서였다. 관리서의 설립 목적은 7월 36개조의 시행규칙인 '국내사찰현행세칙'을 제정할 때 권종석이 쓴 연의에 잘 나타나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구한말 승려들의 폐해와 어리석음이 많아져 승려들 스스로가 불교의 가르침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둘째, 조선조 오백 년을 지내면서 배불정책으로 많은 수모를 당한 승려이지만 역시 그들도 교화하고 가르쳐야 할 백성이고, 불교계의 유적이 폐허가 되어 임의대로 널려 있지만 관리해야 할 대상이다.

셋째, 위의 두 가지 현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리서를 세워 사찰을 총괄한다면 불교계를 정리, 발전시킬 수 있다.

넷째, 이처럼 불교계를 통합 · 정리하고자 함은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침략과 일본불교의 진출에 따른 위기감에서 국가를 보위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불교계가 이 뜻을 받들어 더 이상 참혹한 경지에는 나가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대한제국은 일본불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한국불교계를 통합, 관리한다면 그것이 곧 일본과 일본불교의 침략에서 국가를 보위할 수 있는 길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불교관은 조선조 배불의 경향에서 본다면 상당히 변화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사찰현행세칙에서 제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은 한국불교의 특색이다. 하나의 교리나 종파에 구애되지 않고 돈, 점, 비밀, 부정, 장, 통, 별, 원의 8교의 수기문을 선양하여 견성성불을 진리를 개시할 것을 말하고 있음에서 통불교로 이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현재 창신동에 있는 안양암. 염불신앙의 중심지였다.

관리서에 설치한 승직과 행정적 조직은 불교가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진보된 것이었다. 그러나 불교계 스스로 조직한 것이 아니고 국가의 사원관리라는 목적에 의해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면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국가적인 제한으로 두드러진 것은 행정적 지휘감독권이 전적으로 관리서에 일임되어 사찰들의 독자적인 사원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좌우교정이나 도교정은 사원과 승려에 관한 범위 내에서의 사무만 관장하고 나머지 행정상의 일들은 모두 관리서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또한 좌교정 이하 각 사원의 책임자 임명장을 관리서에서 지급하고 있음도 국가적인 관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개항 후 일본불교 대응해 창건
대법산 제도 폐지 후 쇠락
국가주도 불교관 반영된 곳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사찰현행세칙이 반포되면서 역사적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국가에서 승려가 되는 길을 공식적으로 열어주었다는 사실, 승려의 사회적 신분을 높이고 교단의 발전을 위해 보상과 징계의 규칙을 시행한 점,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여 승려 가운데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자를 교육하여 교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들어있었다.

이는 비록 국가적인 관리라고 하지만 불교가 어두운 시대를 청산하고 비로소 근대적인 모습을 지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사관리서는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폐지될 수밖에 없었다.

당시 대한제국의 정치가 부패하여 훌륭한 법령도 올바르게 실행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도 예기했던 성과를 거둘 수 없자 1904년 1월 관리서를 폐지한 후 그 소관업무를 내부관방으로 이관하였다. 그리고 2월에 칙령 제15호로 사사에 관한 사무를 내부지방국으로 옮겼다. 1910년 한일합방 이후에는 조선총독부 내무부 지방국 사사계로 편성되었다가 1919년에 학무국 종교과로 이관되었다.

3. 거사모임 종교회를 두었던 안양암

원흥사를 창건하고 사사관리서를 설치하였지만 그곳에 신행단체를 둘 수 없었다. 일본불교 신도회 같이 조직적인 활동이 필요했던 대한제국은 원흥사 옆 안양암을 주목하였다. 그곳은 거사들이 중심이 되어 창건되었고, 그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양암은 1889년 성월에 의해 창건되었다. 그는 철종 때 창경궁 남쪽에 살며 불교를 독실하게 믿던 이재청과 부인 김씨의 후손이었다. 그들은 불심으로 자식을 얻어 훗날 불사를 크게 일으키는 인물로 키우고 싶어 사찰에 갈 때마다 득남 기도를 올렸다.

어느 날 김씨 부인의 꿈에 나이 많은 노스님이 장삼을 걸치고 와 절을 하면서 "소승은 삼각산에 있는 승려인데 산을 내려 왔다가 날이 저물어서 갈 곳이 없으니 댁의 사랑에서 하룻밤을 재워 주면 고맙겠습니다."

부인은 스님의 사정을 딱하게 여겨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남편과 의논하겠습니다."하고 남편이 있는 사랑으로 나오는데 잠에서 깨었다.

꿈꾼 내용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 뒤 열 달 후 내외는 남자아이를 얻었고 이름을 창진이라 하였다. 어릴 때부터 글재주가 탁월했던 그는 이십 때 진사가 되어 재주를 드날렸으나 썩어가는 나라의 관리가 되기 싫어 출사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술과 벗하며 세월을 보냈다.

그런 가운데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자 술을 끊고 병간호에 전념하였으나 임종이 가까워졌다. 그러자 창진은 자신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내어 부친의 입에 넣었다. 잠시 기력을 회생한 부친에게 마지막 말씀을 당부하였다. 아버지는 "염불하라. 지성으로 염불해야 극락에 간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부친의 유훈을 받들고자 염불 공부를 위해 사찰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염불정진은 잘 되지를 않았다. 십여 년을 지낸 후 환옹 스님을 친견하게 되었다. 그에게 불법을 잘 닦아 생사대해의 큰 바다를 벗어나는 방법을 물었다. "자네는 육자염불을 주야독송 하여 극락길을 찾으소."

큰 감응을 받은 창진은 출가하기를 간청하였으나 환옹은 거사로 살기를 바라며 성월이라는 법명을 주었다. 이때가 1889년이었다. 염불에 대해 공부하며 여산 혜원이 백연결사를 한 내용을 알고 자신도 절을 지어 염불을 하며 여생을 마치려는 생각이 불같이 일어났다. 그 해 9월 사방으로 터를 구하려 다니다가 동대문 밖에 초옥을 사서 칠성각을 짓고 무양회를 건설하여 염불 도량을 열었다.

칠성각은 거사 사찰이라는 점과 염불 왕생을 목적으로 30여 명에 달해 장안에 화제가 되었다. 1899년 사세가 커지자 이름을 안양암으로 고쳤다. 성월은 1901년 4월 환옹에게 출가하여 선주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 해 5월 도봉산 망월사에서 비구계와 보살계를 받았다.

이렇게 건립된 동대문 밖의 안양암은 대한제국의 대법산 원흥사와 한국사찰을 관리하던 사사관리서와 지근거리에 있었다. 원흥사에 신행단체를 둘 수 없자 1902년 7월 이곳에 거사들의 모임인 종교회를 두었다.

종교회는 임원으로 교장 1인, 부교장 1인, 참사와 서기 2인을 두었다.

안양암에도 수십 명이 집회하여 자신들의 신앙활동을 하였고, 또한 각 도의 거사들을 관장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전국적인 조직을 만들었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런 기록으로 볼 때 대법산인 원흥사가 일본불교에 대한 견제의 일환으로 세워진 것처럼 관리서가 중심이 되어 안양암에 조직한 재가불교운동 역시 그와 같은 의미를 지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사관리서가 격변기를 맞아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1904년 1월 폐지되자 주도했던 재가불교운동 역시 중지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안양암은 지방에 명망 있는 스님들이 한양에 오면 이곳에 머물며 설법도 하고 불공도 하면서 서서히 다가오는 근대불교를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동산불교대학 사찰역사문화연구회 지도교수〉

총기 48년
불기 2563년
불교총지종
25th 현대불교신문 창간 25주년을 축하합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하는 불교총지종.
진언밀교 총지도량에서 즉신성불의 대도를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종령 법 공 대종사
통리원장 인 선
중앙종의회 의장 수 현 / 중앙교육원장 화 령
사감원장 법 경 / 동 해 중 학 교 이사장 인 선
총무부장 원 당 /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 경
재무부장 덕 광 /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법 상
교정부장 승 원 /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 정 /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 정
중앙종의회 의원 / 법장원 / 총지종보 및 종보 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 밀교 연구소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전당건설 위원회 / (재)사회복지재단 / 만다라요양원 · 힐스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 각사원주교및스승 / 초록어린이집 · 잠원햇살어린이집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양지동 제1복지회관
자성일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10시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현대불교신문 창간 25th을 축하합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혜월 원각
총무원장 경원
종도일동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76-9, 일붕선원1층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